

오피니언

光日春秋

한승헌



담양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어 숨진 한 소년을 애도하면서 이 글을 쓴다.

열여섯 살 난 그 학생의 죽음이 하필이면 저작권법 위반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뉴스는 저작권학도인 나를 매우 침통하게 만들었다. 마침 저작권문화학교 강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어서 더욱 마음이 착잡했다. 그 고교생은 인터넷에서 한편의 소설을 내려 받은 일이 있는데, 경찰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오자 고민 끝에 자살이라는 극한 수단을 택했다고 한다.

사실 지금 세상은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로 엄청난 콘텐츠가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동등 떠다니고 있다. 그 중에는 사진, 영상, 영화, 소설 등 저작물이 홍수를 이루어 파일 공유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네티즌들이 얼마든지 퍼올리거나 내려받아 듣고 볼 수 있다.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그 일을 무슨 준비의식으로 막기는 어렵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장이나 행렬이 책이나 디브이디를 쌓아놓고 손대면 안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범죄를 옹호하거나 고소인을 탓할 생각은 없지만, 인터넷범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정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의식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대학 교수들조차 대답하거나 지능적인 표정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드물지 않고, 더러는 그런 일을 약점 삼아 마땅치 않은 상대방을 쓰러트리기도 한다. 그 상대방이 손을 들면 그것으로 끝이다. 표절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그것을 요격미사일로 삼아 명중 격추를 최종 목표로 삼는다. 부도덕성에서는 피차일반이다.

인터넷 저작권과 어린 네티즌

서울의 어느 경찰서의 경우, 그런 종류의 저작권법 위반사건의 고소가 한 달에 300건 내지 500건이나 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서 누가 그 많은 이용자를 추적하여 범인(?)을 알아냈단 말인가?

보도에 따르면, 모 법무법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시켜서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무더기 고소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합의금을 받아내곤 한다고 한다. 그 어린 학생들에게 사전에 주의나 경고 한번 주지도 않고 그런 무자비한 짓을 하는 것이 다른 아닌 법무법인이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어린 학생들을 표적 삼아 무더기 고소를 해서 큰 이득을 챙기는 변호사라면, 그 과오가 어린 네티즌의 내려받기에 비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성인들에게는 몰라도 청소년들을 상대로 그러서는 안 된다. 죽음으로써 풀어야 할 무더기 고소, 그것은 “법의 극은 무법의 극”이란 말을 떠올리게 한다. 저작권 침해의 예방에는 무엇보다 교육과 계몽이 중요하다.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교육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에 앞서서, 또는 그와 아울러 교양교육이나 연수, 훈화, 세미나 등에서 저작권 존중사상을 고취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전문분야를 불문하고 저작권법을 적어도 교양과목으로 채택하고, 표절을 비롯한 남의 저작물 무단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

인터넷 저작권과 어린 네티즌

서울의 어느 경찰서의 경우, 그런 종류의 저작권법 위반사건의 고소가 한 달에 300건 내지 500건이나 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서 누가 그 많은 이용자를 추적하여 범인(?)을 알아냈단 말인가?

보도에 따르면, 모 법무법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시켜서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무더기 고소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합의금을 받아내곤 한다고 한다. 그 어린 학생들에게 사전에 주의나 경고 한번 주지도 않고 그런 무자비한 짓을 하는 것이 다른 아닌 법무법인이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어린 학생들을 표적 삼아 무더기 고소를 해서 큰 이득을 챙기는 변호사라면, 그 과오가 어린 네티즌의 내려받기에 비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성인들에게는 몰라도 청소년들을 상대로 그러서는 안 된다. 죽음으로써 풀어야 할 무더기 고소, 그것은 “법의 극은 무법의 극”이란 말을 떠올리게 한다.

저작권 침해의 예방에는 무엇보다 교육과 계몽이 중요하다.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교육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에 앞서서, 또는 그와 아울러 교양교육이나 연수, 훈화, 세미나 등에서 저작권 존중사상을 고취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전문분야를 불문하고 저작권법을 적어도 교양과목으로 채택하고, 표절을 비롯한 남의 저작물 무단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

저작권법 위반을 두둔하거나 눈감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과 계몽, 경고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안(事案)의 경중과 정상을 고려한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벌금을 바치면 될 일에서 목숨을 바칠 만큼의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변호사도 자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부동산 규제정책 지방부터 완화하라

광주 남구가 다음달 3일부터 투기와 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광주 남구를 비롯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등 지방 10곳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두 차례에 걸친 투기지역 해제나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의 대책으로는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지방 부동산경기가 공공 열어붙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광주 등 지방의 미분양 사태는 심상치 않다. 정부도 전국 미분양 주택이 9만8천235 세대에 달해 외환위기 때의 10만2천701가구에 육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부에선 11월 현재 11만가구로 외환위기 수준을 넘었다고 진단하는 등 미분양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건설업은 내년에도 기계, 조선업과는 달리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민간부문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주택 보급을 확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내역 공시제 등은 주택 품질 저하와 공급 축소 등을 초래해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방의 부동산경기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은 정부가 수도권외의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및 거래세 증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과도한 규제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정책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시장질서를 왜곡시켰다.

정부는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지역경제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업에 발목이 잡혀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을 지방부터 서둘러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 ‘매관매직’ 실태 철저히 규명해야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공무원 승진 과정에서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6급 행정직이 5급으로 승진하면 5천만원, 기술직은 1억5천만원을 자치단체장에게 준다는 것이다. 공무원 승진과정에서 부정부패 고리가 가끔 드러나긴 했지만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박성철 위원장의 주장이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차별 적용되는 정년제도가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매관매직이 이뤄진 자치단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말을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어렵게 됐다. 그는 전국 공무원 사회를 꿰뚫고 있는 현직 공무원이다.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근거없이 발언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는 전국 조합원

을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으며 국가 청렴위에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인사 적체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은 광범하다.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 모을 수 없는 단체장들은 매관매직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돈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도 정년 및 급여와 연금이 늘어나 손해가 없다는 것이다.

매관매직이 일부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믿고 싶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충실히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자정운동도 소용없다는 박 위원장의 말을 감안하면 과장이 결코 적지 않다.

정부는 매관매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 전체 공무원의 명부를 위해서라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 단체장의 인사비리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섬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1986년 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의 최대 수혜지역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이다. 이 법이 제정된 뒤 20년간 전남 도서지역에 8천여억원이 투입돼 다양한 기반시설이 준공됐다.

생활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립되고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해 21세기 관광산업에 이끌 해양자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섬 가치의 높아졌다는 것은 공시지가 상승에서도 감지된다. 완도 보길도는 공시지가로 따져 394억원으로 5년 전 226억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올랐고 신안 홍도는 57억원으로 17억원 올랐다. 연초 경매가 이뤄진 진도군 조도면의 한 무인도는 감정가의 10배가 넘는 3천955만원에 낙찰됐다.

해양주권 확보 차원에서 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일본은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1천740km 떨어진 작은 암초를

일본령으로 등록시켜 주변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는 부처마다 섬 통계가 제각각일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다.

최근 정부가 전남지역 399개 등 전국에서 주민 없는 섬 1천419개를 찾아냈다. 위성영상사진과 지적도면을 대조해 조사한 결과다.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되는 새영토가 생겼다고 기뻐하기보다 이제껏 일제시대에 작성됐던 지적공부에 의존해 왔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암초 하나, 바위 하나도 모두가 소중한 대한민국 영토다. 신규 도서를 등록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

섬의 독특한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개발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섬 개발은 2012년수세계엑스포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과도 일치된다. 섬을 살리는 것은 전남의 맑은 미래와 직결된다.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주민 없는 섬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한국 사람들이 머리 좋고 실력이 좋아 어느 방면에서나 인정받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 유능한 한국인들이 직장에서는 실력만큼 승진하지 못하고 밑바닥 수준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미국 교민들의 현실이다. 언어 장벽이 워낙 높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여겨진다.

한국인 의사들의 경우 미국 병원에서 간호사나 환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성실하고 친절하다는 것이다. 유창하지 못한 영어 때문이다. 수련의 때 당직을 하게 되는 날에는 간호사로부터 환자의 상태를 알리는 수 없이 많은 전화를 받게 된다. 영어에 능

은 오히려 그 교민의 영어를 쉽게 이해하는 반면 오히려 문법적이고 ‘실력 좋은’ 우리 영어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그같은 영어에 익숙해져 고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차라리 아예 배우지 않았더라면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교육부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교육부에서 왜 그런 이상한 발을 표기를 제정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컨대 mustang은 ‘머스탱’인데 ‘무스탕’으로, coyote는 ‘카이오티’인데 ‘코요테’로, collagen, halogen, estrogen

미국서 방해되는 한국식 영어교육

숙하지 못하는 경우 전화 통화는 직접 대화를 할 때보다 알아듣기 힘들다. 미국 의사들이라면 잠자리에 누워 전화 한 통화로 ‘아스피린을 주라’는 식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한국인 의사들은 한밤 중에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입고 환자에게 가 간호사가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직접 환자를 찾아봐야 하는 탓에 친절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오래전 한국의 영어 교육은 주로 문법 위주로 이뤄져 있었다. 책을 읽는 것은 가능하지만 막상 현지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어설픈게 말을 하더라도 발음이 엉터리라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인과 결혼한 일부 교민들의 경우 한국에서 영어를 전혀 배운 일이 없다. 다른 한국인들이 듣기에는 알아듣기 힘든 ‘이상한’ 영어를 구사한다. 미국인들

들은 ‘-젠’인데 ‘-겐’으로, amylase는 ‘아미레이스’인데 ‘아미라제’로, lipase는 ‘라이페이스’인데 ‘리파제’로, genome은 ‘지놈’인데 ‘게놈’으로, sofa는 ‘소우퍼’인데 ‘쇼파’로 익숙해져 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국식 발음이 대화 중 무심코 튀어나오는데 알아듣는 외국인들 하나도 없다. 최근 한남대 김성익 교수가 원어에 가깝게 발음 표시가 가능한 표기법을 개발한 뒤 ‘한글체 영어발음기호’라는 논문을 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검토, 학생들 교육에 반영시킨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유치원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받은 것을 보면서 많이 달라졌나라는 느낌을 가졌다. 더 달라져야 한다. 예전 영어 교육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아파트 맞교환’ 막아야

세금 줄이기 위한 각종 편법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의 경우 별의 별 수법을 다 쓰고 있다. 집값도 비싸고 환급도 좋은 광주시 한 지역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아파트 교환 사업이 유행이라고 한다

예컨대 3억원에 아파트를 산 주민이 아파트 가격이 5억원으로 뛰면서 이 집을 지난해 매물로 내놓고 새 주택을 샀다. 그런데 매물

로 내놓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비슷한 금액대의 주택과 서로 맞바꾼다는 것이다. 집을 교환하더라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이용, 1 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 교환한 집의 취득 가격은 당시 시세로 따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집을 다시 팔때 집 값이 더 올랐다고 해도 양도세(차익의 50%)는 많지 않다. 이같은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문동기·광주시 광산구 사초동

기고

민병환



올해 월출산국립공원 내 이곳 야영장에 부임한 이래, 수련 학생들과 밤낮으로 함께 ‘참된 나, 우리, 그리고 자연과의 만남’을 찾는 여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덧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산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적응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흰소리로 지금 생활은 스님보다 못하다고 말하곤 한다. 인근 사람 스님들은 적어도 공양을 챙겨드리는 보살님이 계시지만, 여기서는 매끼 식사를 각자 스스로 해결해야하니 하는 썰렁이다. 물론 이곳 생활에도 잔잔한 즐거움들이 있다. 특별히 훌륭 있는 방에서 밤의

오고 가는 대화에서 해당 학교의 교풍을 이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며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모든 야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거친 말씨를 쓰면서 기본 생활습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학생들은 구경꾼이 되고 인솔 선생님들께서 대신 야영장 영내 청소를 하는, 곁에서 바라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학교들도 있다. 전자의 학교들을 살펴 보면, 거기에 반드시 존경받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한 학생 교육에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몇몇 선생님들이 있다는

산자락에서 바라본 공교육

적막 속에 들려오는 새들의 울음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탁하고 번잡한 내 마음을 정화하는 소중한 경험들이 좋다.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것들은 소쩍새, 뻐꾸기, 그리고 꿩소리이다. ‘밤에 우는 소쩍새의 목청이 차디찬 금숙성을 띤 금관악기라면, 멀리서 들려오는 뻐꾸기의 목청은 푸근한 달무리가 아련하게 감도는 목관악기의 소리와 같다.’는 어느 분의 표현이 실로 공간이 간다.

야영장에서 근무하면서 얻는 큰 축복 중 하나는 학교에서 근무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여러 교육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다. 금년 한 해 94개 학교 1만여 수련생들이 다녀갔다. 야영장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새롭게 맞이하고 또 떠나 보내면서, 이제는 야영활동 첫 날 굳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직접 수련생들을 대면하지 않더라도, 참 너머 들려오는 입소를 위해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 간의

공통점이 있다. 중 3학생의 입장에서 고교 지원시 각 학교별 지리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하겠지만, 해당 학교의 교육 수준과 그 성과가 학교선택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어떤 이는 교원들의 열정과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학교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무기력감으로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아우성이 들려 올 정도로 우리 학교 교육이 텔레마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육자라는 것은 사람을 바꿀 세상을 바꾸는 중차대한 직분이라고 한다.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의 소명의식과 열정만이 공교육의 희망임을 산자락에서 외쳐본다. <월출학생야영장 관리사무소장>

인사담당자는 ‘마마보이’형 지원자 싫어해

중경 생활품 제조업체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얼마전 영업과 재무, 마케팅, 홍보 디자인 분야에 약 10여명 정도를 뽑았다. 전형 기간중 모집요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묻는 부모들의 질문 전화가 많았다. 응시자의 부모가 전화를 걸어 “전정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합격 기준은 무엇이냐”, “자기소개서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등 채용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응시자의 부모라는 것을 목소리로 쉽게 알 수 있었다. 면접 시험을 치르는 날 회사

정문앞에서 서성거리는 나이 지긋한 아줌마·아저씨들도 많았다. 인사 담당자의 눈에는 이런 지원자들의 경우 무한 품에서 못 벗어나는 ‘마마보이’ 성향이 강한 지원자로 비쳐지기 쉽다.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도움을 벗어나 스스로 헤쳐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신에게 잘 맞는 기업과 직종에 대해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뚜렷한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 ▲남상민·광주시 광산구 사초동

Table with Kwangju Ilbo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address.